

인터넷에 가면 불교가 보여요

자칭 초보불자 박소진씨(28, 회사원). 지난 7월 초 불교가 좋아 집에 무턱대고 찾아갔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절 마당 안을 배회하다 썩스러움만 잔뜩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회사 일로 바쁜 박씨는 사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좀 더 불교에 대해 알기 위해 시간 틈틈히 이리저리 인터넷 서버를 시작했다.

박씨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청학사 홈페이지'(http://soback.kornet.net/~hyunbup). 이곳에서 일주일에 들어서는 순간 시끄러운 경건한 마음가짐에서부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에 가서 제일 먼저 가야하는 곳은 어디인지, 스님이나 불자들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당 출입법, 향 꽃는 법, 촛불 이용법, 합장하는 법도 알 수 있었다. 절에서 하는 합장, 반배, 삼배의 의미, 오체투지 등의 생소한 용어도 접할 수 있어 절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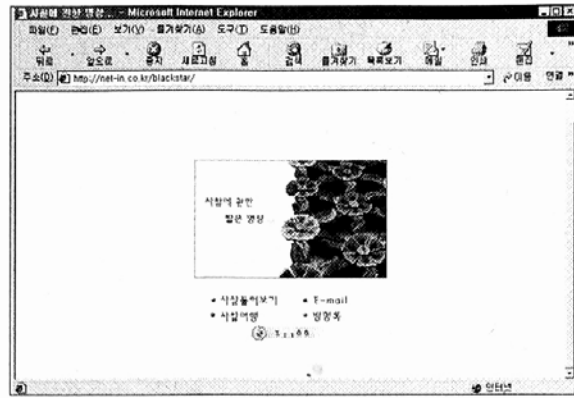
청학사 유한택의... 서재영의...

'유한택의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미술'(http://galaxy.channeli.net/ahnyou)을 들어가자 절에 올 때의 몸가짐에서부터 불전에서의 몸가짐, 법당에서 주의할 점, 법회에 동참하는 자세, 도량에서의 몸가짐, 스님을 대할 때의 예의, 경전을 대할 때 등으로 세분화된 사찰예절을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지식을 얻고 난 박씨는 일요일 절에 가서 법당을 참배했다. 서투르게 삼배를 드리고 향 공양도 올리니 가슴이 뿌듯했다. 조금 여유가 생긴 박씨는 대웅전을 비롯해서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관음전, 명부전, 삼성전이나 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고 불상 보살상의 손모양도 각각 색인 점이 궁금증을 일으켰다. 부처님 뒤에 그려진 그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호기심이 일

절·공양하는 법 등 사찰예절 소개 법당·불상·탱화 의미 이해 도움 기초교리·경전 등 가르침 속속

었다. 박씨의 이러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준 곳은 바로 '사찰에 관한 짧은 명상'(http://net-in.co.kr/blackstar). 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법당, 탑 등 사찰내의 각 건축물의 기능과 의미를 간략하게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서울인근에서부터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의 유명사찰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코너 덕에 웬만한 유명사찰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다. '유한택의 아름다운 삶'(http://galaxy.channeli.net/hansera)을 방문해서는 대웅전, 대적광전, 극락전, 미륵전, 관음전, 명부전, 삼성각 등 다양한 법당의 이름과 모시는 부처님의 종류, 탱화의 종류 등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어 사찰의 구조 및 법당 구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어느정도 예절 및 사찰 구조에 대한 상식을 쌓은 박씨가 최근 인터넷 서핑에 몰두하는 분야는 바로 불교기초교리.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싶은 마음에 '서재영의 불교기초교리강좌'(http://www.buruna.org)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불경에 대한 기초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불교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는 박소진씨

◇ '사찰에 관한 짧은 명상'에는 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등 사찰건축에 대한 설명이 쉽게 풀이되어 초심자들의 눈길을 끈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 경 수
(한국전력 해외사업처 부장)

나는 '초담'이라는 나의 법명이 아주 좋다. 대학교 1학년 때 조계사 청년회의 수계법회를 좇아갔다가 열매결에 받은 법명이다. 불편한 몸으로 소소한 자재법에 계시던 추담(秋潭)스님께서 자신과 동류의 법명을 지어주셨는데,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었겠던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시사철 변화가 춘하추동으로 흘러가는데 추담이란 노스님께서 새내기인 나에게 초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데는 무슨 큰 뜻이 있다고 내 나름대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기초 교리는 물론 분야 심경조차 제대로 외지도 못하면서 수계를 받는 것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고 회장에게 물었다. 일단 수계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면서 한사코 권유를 해 못이기는 척하며 수계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말씀을 먹으며 슬내기를 다니던

었던 한국불교의 세계화(?)된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교는 타종교와는 달리 불·법·승을 삼보로 하는, 스님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므로, 스스로 신성(神聖)을 갖추어야 할 스님들이 시정잡배와 똑같은 추태를 부리는 것은 부처님과 신도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 누구에게도 용서될 수 없다.

게다가 군법사 수급에 6년씩이나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니 불교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가슴이 아프다. 올해는 예년의 10명보다 감점이 많은 24명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되었는데...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농림부 불자회가 1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청월스님 초청법회. 중앙부처 불자회원은 물론 불교와 참선에 관심있는 공무원들 0 참석해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PC통신 오프라인 법회 붐

하이텔 불국사 수계 유니텔 청화스님 친견

PC통신 불교동우회 회원들이 수련대회, 수계법회, 전국 모임법회를 통해 직접 만남의 장을 만들어 불심을 다진다. 하이텔 불교동우회(대표시삼 이승덕)는 26, 27 양일간 경주 불국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100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탐들이, 1080배 철야장진, 석굴암 참배를 비롯해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을 계사로 한 수계법회도 함께 진행한다. 유니텔 불교동우회(대표시삼 이태경)도 26, 27일 전남

곡성 성룡사에서 청화 큰스님 초청 전국모임법회를 갖는다. 130여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에서 청화스님과 불교동우회 회원간의 문답식 법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출발은 하이텔 및 유니텔 불자회 모두 26일 오후 3시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한다. 천리안 불교동우회(대표시삼 이경재)는 18일~20일까지 남원실상사에서 수련대회를 가졌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는 도법스님의 불교와 환경에 대한 강의, 실상사 귀농학교 교감 이해경씨의 환경농업과 농장체험, 영하 '브라드 오브 슬립' 상영, 수계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우리 모임에선 교사불자련 여름 수련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경남지부(회장 김형준)는 18~20일까지 경남 고성군 옥천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대승불교와 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대승불교의 발흥, 대승불교와 보살행, 보살의 신행, 불교학 생회의 운영 등 주제강의와 참선 실수, 산내암자순례로 진행됐

다. 이날 수련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불자 100여명이 참석해 산사생활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했다. 영등포교도소 정기법회 MBC 증권거래소 합동법회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호)와 증권거래소 불자회(회장 김인건)는 17일 여의도불교문화원에서 합동법회를 부형했다. 원일스님(원각사 부주지)이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클릭! 새 홈페이지

■ 에밀리사운드(www.emilysound.com)-국내에서 유일하게 종소리 사운드 모듈을 직접 제조생산하고 있는 에밀리 사운드의 사이트. ■ 불승중흥년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bulseung)-7월28일 개설. 불승중 청년회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연라기구. 정기적인 정팅, 불승중의 각종 행사 소식과 전국 청년회의 사이버 회의를 주관할 계획이다. ■ 호국사 학생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hokuksa)-8월6일 개설. 호국사 학생회 회원들의 모임터. 불교학생회 연합페이지를 준비하고 있다.

"우수한 불교인재 널리 확보"

대학진학 1차, 2차 시험에 실패하고 정처 없이 화산 앞을 떠돌 때, 갑자기 조계사가 눈에 띄어 아무런 생각 없이 난생처음 법당에 들어갔다. 그때 대웅전의 자그마한 부처님께서 은은히 웃고 계시었다. 뭔지 모르는 평안함이 나를 달래주었다.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리다가도 법당을 찾으면 괜히 모르는 고요함 속에 풍요롭고 행복감이 있어 들었다. 그때부터 딱히 오갈 데 없었던 나는 재수하면서도 매주 수요일이면 빠짐없이 조계사 대웅전의 구석자리에 앉아, 무진장스님의 육조단경, 선진규 법사님의 하말리아의 지혜 등의 법문을 들어가며 불교의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대학을 진학해서도 불교학생회 대신 청년회로 계속 나갔었다.

이 응시했지만 합격자는 오히려 줄어 할당된 20명보다 16명이나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점. 중단 없는 난생처음 법당에 들어갔거나 주먹구구식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살만한 인군의 불교 유치원 등 불교계 교육기관이 적다는 것. 역시 나의 마음을 슬스레하게 한다. 이렇듯 우수한 인재 손쉽게 확보하지도 못하는 불교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만 힘있는 종교로서 우리 신도들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불교가 제대로 존립된다고 본다. 그래도 다양한 것은 요즘은 '전국 직장인 불교신행단체' 일로 포교원을 드나들면서 많은 것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불위가 계속 쇠신된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몇 년 전부터 뜸나는 대로 관세음보살을 찾다보니 이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세상이 온통 연두색으로 변하며 따뜻한 관세음보살의 미소가 눈에 들어온다. 그때서 큰스님께서 내 법명을 초담이라고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다.

공무원불자련 결성 가시화

29일 실무자회의 열여

정부부처 공무원불자들이 연합회 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회 등 중앙 부처 공무원 불자회 임원들은 농림부 불자회가 16일 개최한 정부중합참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송광사 청월스님 초청법회에 참석해 전국공무원불자결성을 위해 8월 29일 실무자회의를 갖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실무자회의를 통해 10월 7~8일 예정된 전국공무원 불자회 합동성지순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공무원불자회

회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 구성 등 연합회 구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부가 주최한 청월스님 초청법회는 과천정부중합참사 불자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해 공무원불자 상호간에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연합 활동의 토대를 다졌다. 농림부 나승렬 불자회장은 "공무원불자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위해 이같은 법회를 마련했다"며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진다면 연합회 구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공 고

제 29차 운문 총동문회 소집

알밤이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각처에서 수행과 포교에 정진하시는 동문스님 한해동안 청안 하셨습니다. 바쁘신일 잠시 놓고 모교 운문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도반들이 함께 만날날이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했던 학인시절,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한 옛 도량에 모여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의 동문회는 고회를 맞으신 우리들의 스승님 강주스님 고회기념 논문집 봉정식과 겸하여 스님 작품 전시회도 조출하게 갖게 됩니다. 형편상 개별특성 생략하더라도 양지하시고 무루 참석하여 주십시오.

- 일 시 : 2000년 9월 17일 일요일(음 8월 20일) 오전 11시
- 장 소 : 청도 운문사 만세루
- 연락처 : (054) 372-8800 (운문사 중무소) 064) 782-2564 (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동문회 회장 대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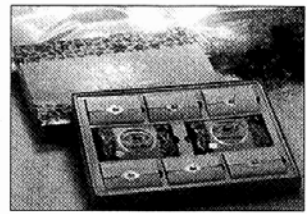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를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몬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매아기 엄지의 땀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을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력신세

생리통·기미 33세인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 755-9821

매달되는 증상에 (○) 미심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땀이 많이 났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능으로 고통을 당한다

※향비기 미심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